

특특뉴스

제주항공, 회원 항공권 프로모션

제주항공이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일주일간 회원을 대상으로 한 'JJ멤버스 특가'를 진행한다.

JJ멤버스 특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탑승 가능한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로,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다.

JJ멤버스 특가의 편도 총액임입 기준 최저운임은 국내선 광주/부산-제주 4만 3,700원, 김포-부산 3만 4,700원 등이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 출발 기준 일본 노선 최저운임은 후쿠오카 11만 4,200원, 도쿄·오사카 12만 6,100원이다.

항공권은 이메일자와 환율변동에 따라 총액 운임이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약상황에 따라 조가마감 될 수 있다.



21일 광주시 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사들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역차별” vs “골목상권 보호”

제20대 대통령실 국민제안 TOP10 우수 안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등록되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유통계는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휴업은 불공정을 초래한다는 의견인 반면, 중·소상공인은 골목상권을 침해당할 수 있고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들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 휴업을 시행해왔다. 휴무날에는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 배송도 금지된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TOP10 선정 대형마트계·소상공인 입장 충돌 노동자 "건강·사회권 침해" 반발 마트 "실효성 없고 불공정 유발"

하지만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날 '국민제안 접수 사안 TOP 10'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선정했다.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연합회는 "유통 재벌들은 의무휴업 폐지 주장을 작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인 '대형마트 휴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소비자 응답률은 8.3%에 그친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면서 "하지만 이 조사에서 전통시장을 비롯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은 57.2%나 됐다. 전경련이 의무휴업의 효과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트 노동자들도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인기투표에 부친 것'이라며 투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 서비스산업연맹 유통분과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역차별” VS “골목상권 보호”"이라며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며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행된 것은 고객들의 일부 불편보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대형마트들은 해당 규제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선정 결과를 반기고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러한 규제로 오히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1년 이내 대형마트 이용 경험이 있는 서울·6대 광역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48.5%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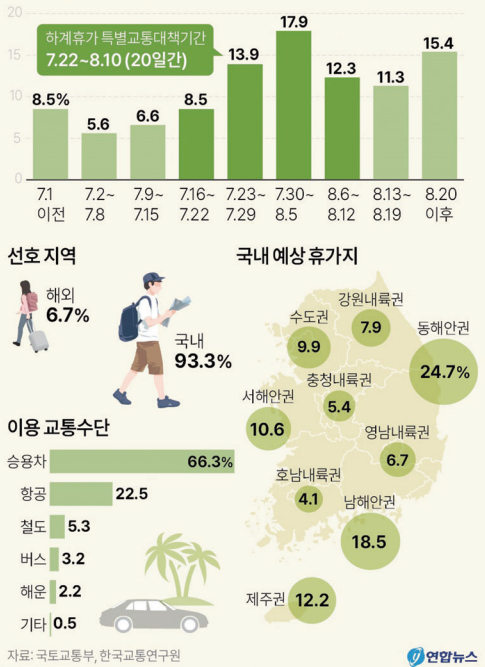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나'는 질문에 '효과가 없었다'는 답변이 48.5%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57.3%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광주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유통계는 업장 규모가 아닌 아닌 온·오프라인이 경쟁하는 시대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오히려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면서 "이에 관련해선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실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홍승현 기자

그래픽 경제

여름휴가 언제 많이 가나

한국교통연구원 6월21일~7월9일 14,968세대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



휴가철 고속도로 '7말8초' 몰려

올여름 휴가철에는 7월 말~8월 초(7월 23일~8월 5일)에 가장 많은 휴가객이 몰릴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8월 말까지 고르게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이달 30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때는 3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은행, 디지털 통합연수 직원들과 간담회

광주은행은 지난 20일 JB금융그룹 디지털 통합연수를 수료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된 제1기 JB금융그룹 디지털 통합연수는 광주은행을 포함한 자회사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실무

형 디지털 인력 양성 및 디지털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연수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통합연수 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주

문했다. 송 은행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직원들은 디지털전문인력 17기로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고, 심화과정을 통해 디지털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www.dklmc.co.kr

도경건설 주식회사는

도로포장 전문 업체로서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특히 30여개를 등록하였고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에 9가지 기술을 등록,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결빙방지제를 생산하는 라인을 완성하여 SOC기술마켓에도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한국형 포장기술을 완성해 나아갈 것입니다.

결빙방지재 (Grikol) | **균열보수재 (DK-Creak Sealer)** | **반강성주입재 (Semi-rigid Pave)** | **고성능개질콘크리트 (BLMC)**

대표이사 신현국 박정연
Tel. 061_393_3315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봉암로 910

길 만드는 사람들
도경건설(주)
DOKYEONG Construction CO.,LTD